

# 미래농정의 토대 마련에 역점 둔다

### 군산시 농정 주요업무계획 밝혀... 6차 산업 활성화 · 농촌 복지증진 확대 등 추진

2018년 군산시 농정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생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발굴로 미래농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지난 19일 안창호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8년 군산시 농정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농촌의 고령화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지역농업 여건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식품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 복지증진 확대 시행, 신규 청년 농업인 적극 발굴 육성, 안전 먹거리 보급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시설원에 생산시설 확충,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및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쟁력강화 및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 맞춤형역량강화 등 전문 인력 양성, 생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수입모델 발굴육성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

물로 고품질의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군산 쌀·찰쌀 보리 생산 안정화 및 브랜드 파워 향상, 다양한 유형별 유망 특화작물 재배 확대, 새소득작목 실증재배 및 확대 보급과 생력기계화를 통한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경쟁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판매망 확보 및 맞

춤형 비료 공급과 학교급식센터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와 농축산물 시장개척 및 관로확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농축산물유통체계 구축에 전념키로 했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민선8기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7기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한 해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농업관계자 역량강화로 미래농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원광대-프렘파스트 · 한국토미 산학교류회 ·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LINC+사업단 (주)프렘파스트, (주)한국토미가 기술혁신·인재양성을 위한 산학교류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근 원광대 회의실에서 진행된 산학 교류회는 산업체 수요 인재육성과 공동기술개발, 산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참여 기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산학교류회 및 협약식에 참석한 송문규 원광대 산학협력단장 겸 LINC+사업단장과 (주)프렘파스트 원재희 회장 (주)한국토미 이상열 대표는 이날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통한 사업적 혁신과 함께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지원, 기술교류 등에 대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1992년 설립돼 세종특별시에 본사를 둔 (주)프렘파스트는 플라스틱 배관 및 봉 호스제조업체로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과 함께 매출액 453억을 올리면서 빠른 속도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017년 멀티레이어를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를 기점으로 한 (주)한국토미는 전북 완주군에 지점을 두고, 특장용 차량 사시 및 특수목적용 차량을 제조해 현대와 대우 등에 약 600종의 특장사시를 공급하는 창립 30주년의 중견기업으로 해외시장까지 개척해 주목받고 있다.

원광대 송문규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이 동반성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산학협력 교류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선도모델을 창출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지역 농산물 순환체계 구축 나서

### 로컬푸드 · 학교급식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가공 거점으로 중점 육성

군산시가 대대적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보급을 통해 지역농산물 가공의 부가 가치를 농가에 환원하는 순환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적극 나섰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을 연결고리로 지역 농산물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지역 농산물 가공의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농산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농산물 가공의 부가 가치를 농가에 환원하는 지역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완성도 높은 로컬푸드를 실현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쌀조청을 시작으로 잼류, 과채음료, 참기름, 제과제빵 제품에 대한 공급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전략적인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을 상품화할 방침이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을 연결고리로 지역 농산물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지역 농산물 가공의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반찬류, 소스류, 제과제빵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유통기 가공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레토르트 살균기, 착유기, 포장기 등 농업인 공동안용 가공장비를 추가한다.

운영 전문인력을 증원 배치해 농업인의 가공식품 제조기술, 식품안전,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도 추진하여,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차별화된 로컬푸드 가

공식품 상품화를 지원책도 마련했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제품 품목을 다양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인 직접 가공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70종 110대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쌀조청, 잼류, 분말가공품 등 28개의 농업인 직접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지난해 흡수포 진출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을 선도하고 있어 전국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군산시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 5000원씩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지원금 1300만 원이 적립돼 인사 2년 후 1600만 원+지방만큼 만기수령이 가능한 사업이다. 공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가입 기업에게 청년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지적제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와리 · 옹포지구 지정 위해

익산시가 와리지구(익산시 합영읍 와리 201-21번지 일원)와 옹포지구(익산시 옹포면 옹포리 106번지 일원)를 2018년 지적제조사사업에 지정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장구마을경로당(17일), 장구2마을경로당(18일), 옹포마을여성노인회(19일)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8.17시행)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축림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제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을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적 불부합이 심각한 지역인 와리지구와 옹포지구를 2018년 지적제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제조사사업 추진절차, 사업지구 선정배경,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토지현황조사와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조정금 산정과 정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와리지구, 옹포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조기완료에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제조사 사업은 사업지구로 지정 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익산시는 전년도에 지구 지정된 3개 지구(왕궁, 발산, 합라, 신북, 오산, 영만)와 올해에 추진하는 3개 지구(장조, 조화, 합리, 와리, 옹포)를 포함하여 총 1837필지(112억1300㎡)를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의회 정기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9일 제2기 어린이·청소년의회 정기회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2017년 5월에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마지막 회의 일정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정기회 2회, 임시회 5회의 비번 회기 일정을 순조롭게 마감하는 자리였다.

제2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표로서 어린이·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의회 30명과 청소년의회 30명을 선출하고, 4월부터는 발대식 등을 거쳐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이날 정기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대표 소감 발표로 제2기 어린이·청소년의회 마감의 아쉬움을 달렸으며, 뒤이어 청소년의회 의장의 진행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회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간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에서는 제3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3월 중에 공개모집을 실시해 어린이의회 30명과 청소년의회 30명을 선출하고, 4월부터는 발대식 등을 거쳐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농협-지역농·축협 지역농업발전계획 착수보고회

"익산시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 농협 익산시지부, 익산관내 지역농·축협 14개소는 지난 19일 익산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회의실에서 익산시와 지역농·축협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농업발전계획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익산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보고회에는 시의회, 농민단체,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익산시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017년 4월 발족한 상생협력단은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성과로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증가된 예산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익산시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앞으로 농협과 함께 익산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